

# 만·성·간·장·병·특·집

(200호에서 계속)

인터페론의 부작용은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형 간염에서 인터페론 투여 후 일시적으로 간염수치가 올라가는 악화기가 있는데, 이 반응이 너무 심하여 간기능 부전 및 간성혼수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투여 초기에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감기증세를 호소하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인터페론 투여 후 울중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기왕의 정신과적인

치료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술이나 약물에 의한 간염 치료의 첫째 목표는 술이나 약물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많은 알콜성 간염환자에서 습관적인 음주로 인하여 병이 회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수한 형태의 간염, 즉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선천성 대사장애에 의한 간염의 치료는 일반적인 만성 간염의 치료범주를 벗어나지

히 중요하다. 또한 혈액을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약물중독이나 문신에 의한 전염

되고 있으므로 접종에 문제는 없다. 3회에 걸쳐 1차접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5년 후에 2차접종도 시행해야 한다. 이러

다만 개인위생이나 단체 위생에 대한 처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간염바이러스에

## 인터페론 부작용 심각한 결과 초래

도 흔히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해야 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감염되므로 출산 직후 예방접종을 반드시 시행하

한 B형 간염 예방주사는 감염원과 접촉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혈액취급자나 보균가족자들)은 반드시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은

감염되어 보균자 상태가 되어도 모두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감염된 보균자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약이나 기타 성분 모르는 또는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을 금하고 과음이나 과로는 피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검사(대개 6개월 간격이 좋으나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간암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어른에서 감염 예방은 개인 위생에 중점 두어야

## 알콜성 간염환자 정신과적 치료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빈혈,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면 바로 회복된다. 그리고 드물게는 갑상선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못하고 또 그 예후도 좋지 않다. 다만 자가면역성 간염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치료효과가 어느정도 기대되고 있을 뿐이다.

### 3. 만성간염의 예방

한국에서의 만성간염은 거의 대부분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이므로 만성간염의 예방은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은 감염정도를 알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가능하나, 보균자의 혈액을 통하거나 직접적인 접촉, 즉 성관계나 타액에 의해 전염된다. 따라서 어른에서의 감염예방은 이러한 개인위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보균율은 B형에서는 8~10%, C형에서는 1~2%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의 개인위생은 특

여야 한다. B형 간염의 예방접

종은 현재 효과적으로 시행이

아직 예방주사가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접종은 불가능하고

(끝)

## 날씨 쌀쌀해지면 腦卒中 급증

### 한해 3만명 死因 1위 정부차원 대책 시급

선진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뇌졸중 환자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5년 한해 사망자(23만8천1백32명)의 15%인 3만6천61명(사망원인 1위)이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 질환으로 숨졌다. 또 인구 10만명당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81년 43.6명꼴에서 95년 79.7명꼴로 약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남성흡연율·당뇨병 발생률이 세계 1위고 음주율·소금섭취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여러 조건이 뇌졸중을 일으키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오창완(吳昌完) 교수는 "최근 뇌졸중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환자가 부쩍 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서일(徐一) 교수는 "정부가 고혈압·콜레스테롤의 관리요령과 금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면 뇌졸중 환자수를 1년에 1만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 뇌졸중 예방대책 - "짠 음식 피하고 팔·다리 따뜻하게"

-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한다.
- ▲짜고 기름진 음식·육류 섭취를 피하고 채식을 즐긴다.
-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아야 한다.

성균관 대학교 약대 와 산·학 협동 연구 개발! (PF127 제법특허 출원)

# 도전! 간질환 치료율 100% - 메레스

97년 9월 발매개시!

체내이용률을 높인 간질환 전문치료제

간질환 전문치료제 메레스의 특징

1. 메레스의 체내이용률이 일반 간질환 전문치료제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2. 만성간염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메레스 복용 3개월후 85.6%의 SGPT 수치 개선)
3. 만성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됨을 지연, 예방시켜 줍니다. (1992년 제41차 대한 내과학회 순계학술대회 발표)
4. 7.5mg DDB 캡슐제로 간세포 재생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초로 국내제계 기술로 생산)
5. 면역기능 증강 및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6.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는(항암제, 항결핵제 등의) 약물과 병용시 간장애를 예방합니다.

체내이용률을 높인 간질환 전문치료제 메레스 캡슐

한일약품

용법·용량: 성인(체중 60kg 이상) 1회 7.5mg, 1일 2회 복용할 수 있으며 투여기간은 4~7개월간으로 한다. 표준소매가격: 85,000원 / 90일분